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88
SEP 10 2021

발간년월 2021년 9월 10일(통권 제18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 북극항로에 정기 화물운송서비스 도입 검토
- 러시아 사할린 코르사코프에 어항 건설 추진
- 인도, 북극 LNG 2 사업 지분 9.9% 확보 협상
- 일본 MOL, FSU 지분 49% 매입 의향서 체결
-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세 자유구역 설치 준비
- 터키 조선소, 러 쇄빙 LNG선 건조 계약 체결
- 러시아 물류부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방향

주요 통계

- 2021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러, 북극항로에 정기 화물운송서비스 도입 검토

그림. 푸틴 대통령의 극동연방관구 방문



자료: <https://rg.ru/2021/09/02/reg-dfo/putin-rasskazal-o-planah-na-severnyj-morskoj-put.html>

■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극 항로 활성화 방안 등 제시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해양과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함^{a)}
-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북극항로를 통해 정기 화물 운송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음
-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 사업의 경제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 외에도 투자자들이 기존 지원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부터 정기 화물운송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대두^{b)}

- 러시아 대통령의 북극항로를 통한 정기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발표는 분명 관련 사업을 가속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기 화물운송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정기 화물운송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노선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화물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내렸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putin_prizval_vvesti_regulyarnye_gruzovye_reysy_iz_vladivostoka_v_peterburg.html(2021.9.8. 검색)
-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a_polnocennyj_zapusk_konteynernoy_linii_po_smp_mozhet_uyti_minimum_5_let.html(2021.9.8. 검색)

러시아 사할린 코르사코프에 어항 건설 추진

그림. 코르사코프 항만 위치(왼) 및 상업항(오)



자료: 구글맵 활용 KMI 작성



- 선석 수 6개
- 크레인 수 14대
- 총 창고 면적: 37,000m²
- 위험화물(3class)용 창고 면적: 15,000m²
- 통관검사구역 면적: 8,000m²
- 일시적 통관검사구역 면적: 1,500m²
- 실내보관시설 면적: 6,000m²

■ 코르사코프에 새로운 어업물류센터를 설립할 예정

-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극동·북극개발부는 ‘Antey Asset Management’가 참여하는 사업 추진 협정(MOU)을 체결했음
- 사할린에서는 연간 6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어획되고 있으나, 저장 및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해외항만(예: 부산)으로 바로 운송되어 처리되는 실정임
- 이러한 공급망에 변화를 주기 위해 코르사코프에 어업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극동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코르사코프에서 저장, 보관, 가공 등 부가가치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사할린 주지사는 코르사코프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설립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업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 70억 루블을 투입하여 항만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 코르사코프 어업물류센터 건설 사업은 코르사코프 항만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항만 근처에 설립될 예정이며, 약 70억 루블이 투입될 예정임

- 코르사코프 어업물류센터에는 연간 최대 10만 톤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과 부산물 공장, 5000 톤과 1만 톤 규모의 냉장시설과 컨테이너 야드 등이 들어설 예정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krupnyy_rybnyy_port_sozdadut_v_korsakove.html
(2021.9.8. 검색)

인도, 북극 LNG-2 사업 지분 9.9% 확보 협상

■ 인도 2개 에너지 기업, 러 노바텍과 지분 협상

- 인도 에너지 기업 Petronet LNG사와 ONGC Videsh사가 공동으로 러시아 북극 LNG-2 사업의 9.9%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바텍과 협의를 진행 중^{a)}
- 러시아의 최대 LNG 생산기업인 노바텍은 110억 달러 규모의 북극 LNG-2 사업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 이외 프랑스 Total Energies SE, 중국 CNPC와 CNOOC Ltd, 일본 컨소시엄 등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음
- 당초 노바텍은 유럽, 러시아, 아시아 금융기관이 자금의 3분의 1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유럽 금융권에서 차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인도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

- 인도 모디 총리는 자국을 청정연료 기반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 비전 실현의 하나로 LNG와 같은 청정연료 공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LNG의 비중을 기존의 2배인 15%로 늘리려고 하고 있음
- 이 같은 정책의 하나로 인도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인도 석유부 장관이 북극 LNG-2 사업 이외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도 러시아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국영기업들은 이미 사할린-1, Vankor, Taas-Yuryakh 등의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사업에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 인도는 10년 전 ONGC Videsh, Petronet LNG, GAIL India Ltd. 등이 노바텍의 첫 번째 LNG 사업에 지분 20%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음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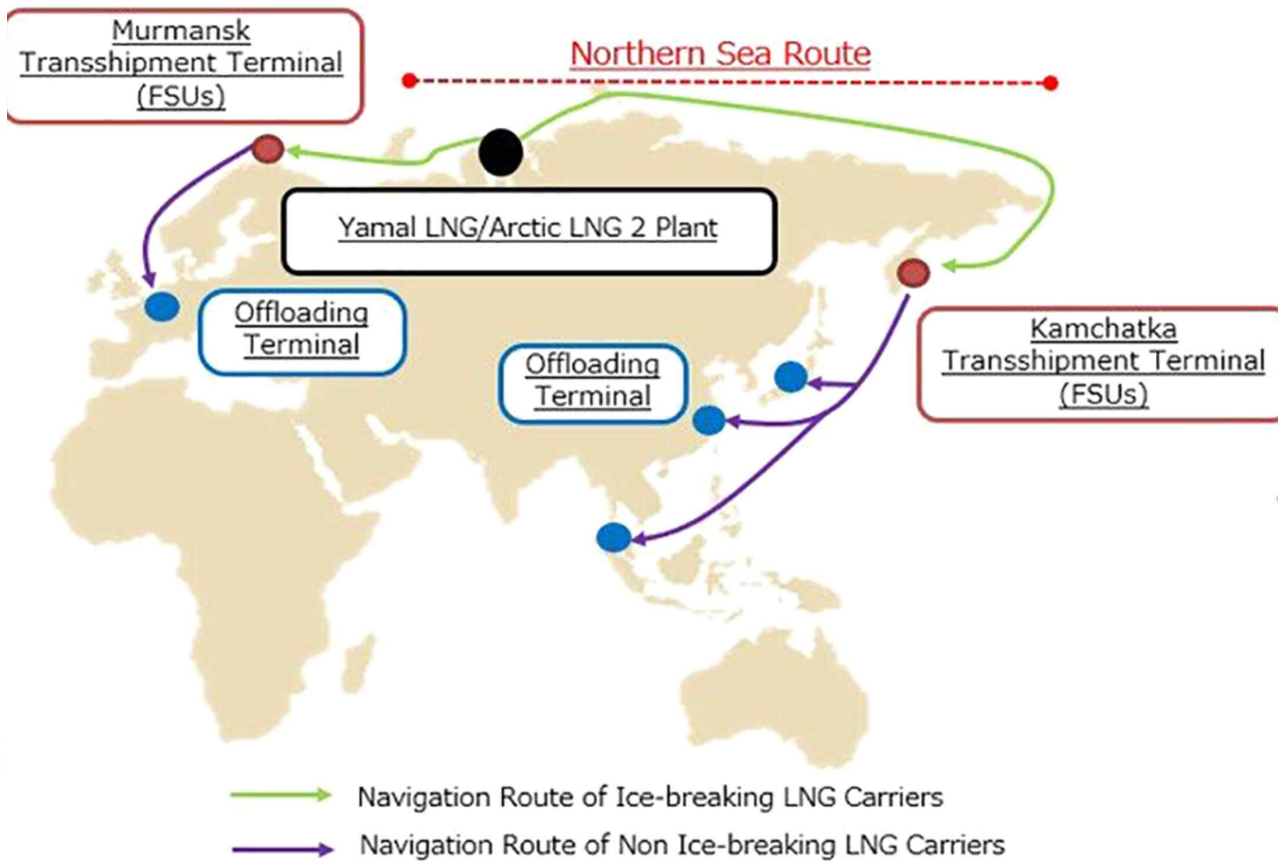
- a)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9-06/india-energy-firms-are-said-to-discuss-buying-arctic-lng-2-stake>(2021.9.9. 검색)
- b)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ovl-in-talks-to-buy-stake-in-russias-vostok-arctic-lng-2-project/articleshow/85978925.cms>(2021.9.9. 검색)

일본 MOL, 러 FSU 지분 49% 매입 의향서 체결

■ 러시아 국영 운송 임대기업과 부유식저장설비(FSU) 지분 매입 의향서 체결

- 일본의 대형 선사인 MOL(Mitsui O.S.K. Line)이 러시아 국영 운송임대기업(GTLK)이 현재 100% 보유하고 있는 부유식저장설비(FSU) 소유 기업 지분 중 잠재적으로 총 49%의 지분을 매입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GTLK는 러 연방 교통부 산하 국영 운송임대기업으로, 캄차카와 무르만스크 LNG 환적 사업과 관련하여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환적설비(FSU) 소유기업에 대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FSU 소유기업들은 이미 Arctic Transshipment LLC(JSC NOVATEK과 Total Energies의 합작투자사)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노바텍의 LNG 사업에 대한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세계 최대 저장용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FSU(약 36만 m^3) 2척은 캄차카 베체빈스카야 만과 무르만스크 우라 만에 각각 배치될 예정임
- FSU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MOL은 선박의 기본 설계, 계획 승인, 현장 감독 업무 등의 기술 부문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건조사업을 지원해 왔음
- 러시아 노바텍은 LNG를 쇄빙 LNG선에 적재하여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하고, 캄차카와 무르만스크에서 LNG를 일반선박으로 환적하여 소비지까지 운송할 경우 운항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외에도 LNG 소비지로부터 근거리에 LNG FSU를 두는 것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은 물론 러시아 북극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을 확보한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MOL은 러시아 북극항만에서부터 환적터미널을 통해 쇄빙 LNG선에서 일반선박으로 재적재하여 LNG를 소비지까지 수송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극항로를 통해 안정적인 LNG 운송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림. 북극 LNG 수송로



자료: <https://shipinsight.com/articles/mol-takes-stake-in-fsus-for-nsr-lng-chain/>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세 자유구역 설치 준비

■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직접 도입계획 천명^{a)}

- 극동·북극개발부 알렉세이 체쿤코프(Alexei Chekunkov) 장관은 지난 10일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야(Izvestia)와의 인터뷰에서 쿠릴열도 투자자들의 세금면제 조치 준비를 9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이라 밝힘
- 그에 따르면, 관세자유구역의 도입을 목표로 투자자들의 모든 세금은 장기간 완전 면제되고 사회보험료 또한 7.6%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임

■ 러, 쿠릴 열도 투자 사업에 일본과의 협력 기대

- 쿠릴 열도 내 선도개발구역은 31.5헥타르로 넓지 않지만, 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구역이자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곳임
- 알렉세이 장관은 쿠릴 열도가 러시아의 일부로 포함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희망하는 틀 내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수산자원 가공이나 관광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터키 조선소, 러 쇄빙 LNG선 건조 계약 체결

그림. 쇄빙LNG선 렌더링 이미지



자료: <https://portnews.ru/news/316795/>

■ 터키 쿠제이스타(Kyzey Star) 조선, 러시아 쇄빙LNG선 2척 건조계약 체결^{a)}

- 터키의 조선 및 선박 수리 전문 업체인 쿠제이스타는 8월 5일 카렐리야 공화국에 소재한 오네가 조선소와 러시아 해운항만청 로스모르포트(Rosmorport) 프로젝트 23620의 이중 연료체계의 쇄빙선 2척 건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7월 중순 경 오네가 조선소가 쇄빙LNG선 건조 사업 계약을 로스모르포트와 체결한 이후 하청계약으로서 쿠제이스타와 오네가 조선소 간 계약이 체결된 것임
- 이는 지난 6월 쿠제이스타와 로사톰(Rosatom) 소속 '아톰플로트(Atomflot)'사 간 핵 추진 쇄빙선을 위한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건설을 비롯해 핵추진 쇄빙선 도크 수리 및 프로젝트 2220의 신규 핵추진 쇄빙선 건조 시리즈 3척 가운데 하나인 '아르티카(Arktika)'호와 핵 추진 쇄빙선 도크 수리, 원자력 기술 안전성 보장 작업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새롭게 체결된 계약임
- 6월에 계약이 체결된 건조 사업은 총 49억 8,100만 루블 규모에 이르며, 선박용 도크는 29개월 안에 건조하는 조건이며, 쇄빙선 2척 건조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음

■ 쇄빙선 건조 프로젝트, 주요 기반 인프라 현대화 및 확장 종합 계획에 포함

- 쇄빙 LNG선 건조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185억 루블이며, ‘주요 기반 인프라 현대화 및 확장 종합 계획’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로 LNG 기반 추진 동력을 갖춘 러시아 최초의 쇄빙선 프로젝트임
- 건조될 쇄빙 LNG선은 쇄빙 등급 Icebreaker 7에 12-14MW급 출력을 갖추었고, 최대 1.5m 두께의 얼음을 깨며 발트 해, 백해, 바렌츠 해, 태평양에서 연중 제한 없이 항해가 가능함

■ 쿠제이스타 조선은 LNG 추진선 건조 사업을 진행하는 등 러와의 협력 활발

- 2020년 8월 21일 쿠제이스타 조선은 레닌그라드 주에 소재한 넵스키 조선과 합작하여 프로젝트 CNF19M의 LNG 추진선 ‘마샬 로코소프스키(Marshal Rokossovsky)’ 건조 사업에 착수한 바 있음
- 마샬 로코소프스키 선박은 쇄빙선 호위 없이 우스트 루가-발틱 해 항로를 연중 항해할 수 있으며, 터키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가장 큰 선박임
- 2021년 5월 22일에는 프로젝트 CNF19M의 일환으로 자매선인 ‘체르냐홉스키(Chernyakhovsky) 총독’ 선박의 건조 작업이 시작되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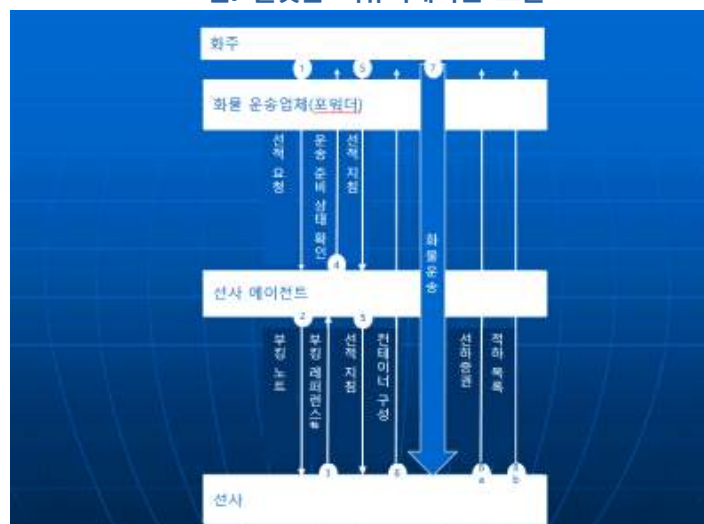
- a) <https://portnews.ru/news/316795/>(2021.9.8.검색)
- b) <https://en.portnews.ru/news/316821/>(2021.9.8.검색)

러시아 물류부문의 디지털 전환 : 현황과 방향

■ 타국의 물류 디지털화 대비 낙후된 러시아의 물류 디지털 현주소^{a)}

- 물류 디지털은 운송요청, 전자서류, 연료 소비조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외부적으로 변화를 가져옴. 물류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Youship, Global Slot, Greybox 등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나 높은 비용과 사용자들의 필요성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성공하지 못함
- 가스프롬뱅크 아프토리징(Gazprombank autoleasing)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78%가 전자데이터 교환(EDI)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선하 증권, 부킹 노트, 적하목록, 항공 운송장, 화물 세관신고서 등을 전달할 수 있으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정부 규제로 이용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남미 국가의 경우, 수입 상품의 통관을 위해 원본 선하 증권이 필요하며, 러시아는 식물위생관리 물품 수입 때 원본 선하 증권 위에 수의 식물검역감독청 마크가 있어야 하고, 신용장 거래 시 운송 및 선적서류의 원본이 필요하기에 대규모 디지털화에 어려움이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프로토콜인 EDIFACT over Internet(EDIINT)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림.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모델



자료: https://logirus.ru/articles/solution/tsifrovye_korablekrusheniya.html

- 러시아 물류 디지털 정도는 세계 속도보다 많이 뒤처지며, 기업 간 정보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물류 디지털 실현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유럽의 경우 기업 간 상용 데이터 교환 프로세스로 직접 방식(Direct method)과 밴(VAN:부가가치통신망, Value Added Network) 형식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 직접 방식(Direct method)이란 기업 또는 개인 컴퓨터에서 정보를 받아 수신 컴퓨터로 직접 전송하는 것으로, 주로 90년대 초중반에 사용되었고 밴(VAN) 방식은 보안 네트워크 아래 기업 간 EDI 형식의 문서 교환으로 단순한 전송 기능 이상의 정보축적, 가공 처리 등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이는 우체국 시스템(우편을 처리하고 수취인에게 발송)에서 착안함
- 밴(VAN)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독일 함부르크 항만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 관리 자동화 시스템(DAKOSY)으로 화물 운송업자, 세관 당국, 항만 하역작업자, 철도·도로 운송업자, 컨테이너 창고 관리자 등 물류의 모든 관련자에게 전자 데이터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미국 세관이 개발한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로 수출입업자의 상품 신고와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 러시아는 아직 이 같은 물류시스템이 없어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디지털 서비스의 필요 여부와 사업 동반자의 디지털 서비스 사용 여부, 사이버 보안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이 부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참고자료

a) https://logirus.ru/articles/solution/tsifrovye_korablekrusheniya.html(2021.9.4. 검색)



주요 통계



표. 2021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3.48 (+7.2%)	5.74 (-5.1%)	19.22	+2.8%
북극해	2.91 (+1.6%)	5.57(-1.2%)	8.48	-0.4%
발트해	10.3 (+6.6%)	10.57 (-5.7%)	20.87	-0.3%
아조프-흑해	21.64 (+10.4%)	11.51(-1.2%)	22.88	+3.5%
카스피해	0.16 (-32.9%)	0.38 (-0.9%)	0.54	-14.6%
합계	36.98(+7.1%)	33.77(-3.3%)	70.55	+1.5%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6908/>(2021.8.1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5455/>(2021.8.14. 검색)

표.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255,992.2	68,996.9	1,479.9	1,414.0	257,472.1	70,410.9
25-27	광물 제품	3,169,535.8	30,354.4	62,729.7	79,648.8	3,232,265.6	110,003.2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2,842,832.9	29,555.4	363.3	0.92	2,843,196.1	29,556.3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936.9	72,139.6	1,278.9	1,063.0	6,215.8	73,202.6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17.5	2,051.4	100.3	8.0	117.7	2,059.4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36,604.0	9,183.8	1,578.0	6.3	138,181.9	9,190.1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708.1	42,827.8	154.6	624.7	862.7	43,452.6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3,849.9	83,143.2	1,379.7	4,372.1	55,229.6	87,515.4
84-90	기계류	24,350.1	453,538.0	6,521.2	2,728.9	30,871.3	456,266.9
68-71, 91-97	기타	385,687.6	57,114.5	77,273.6	290.3	462,961.2	57,404.8
	합계	4,031,682.1	819,349.6	152,495.9	90,156.2	4,184,178.1	909,505.8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8.19. 검색)

표.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371	469.9	-	-	-	-	-	-	370.5	469.9	-	-
0303	냉동수산물	74,588	103,218.3	-1,061	-4,916.8	27	35.7	-	-	74,614.8	103,254.0	-1,061	-4,916.8
03031	연어	7	54.6	-	-	0	0.0	-	-	6.7	54.6	-	-
030331	광어	445	2,441.4	-	-	-	-	-	-	444.6	2,441.4	-	-
030332	가자미	1,371	1,203.9	-	-	-	-	-	-	1,370.6	1,203.9	-	-
030339	기타 넙치류	2,188	1,858.1	-	-	-	-	-	-	2,188.3	1,858.1	-	-
030351	청어	7,736	5,752.3	-	-	0	0.0	-	-	7,735.6	5,752.3	-	-
030363	대구	7,665	20,157.4	-	-	-	-	-	-	7,665.3	20,157.4	-	-
03036 70000	명태	29,977	34,609.2	-	-	27	35.7	-	-	30,004.1	34,644.9	-	-
03038 93	농어	16	46.6	-	-	-	-	-	-	16.4	46.6	-	-
030391	알류	4,241	78,804.1	-	-	-	-	-	-	4,240.7	24,538.1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1,127	1,775.8	-	-	-	-	-	-	1,126.7	1,775.8	-	-
0304	생선 필레	8,944	29,952.6	-3,353	-10,084.0	26	63.0	-	-	8,969.8	30,015.6	-3,353	-10,084.0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13	37.5	-289	-489.9	0	0.0	-	-	12.5	37.5	-289	-489.9
0306	갑각류	7,724	170,943.8	51	551.8	-	0.0	-	-	7,724.0	170,943.8	51	551.8
030614, 030633, 030693	게	6,805	161,672.7	-	-	-	0.0	-	-	6,805.2	161,672.7	-	-
0307	조개류	2,261	6,599.8	-	-	2	8.9	-	-	2,262.7	6,608.7	-	-
03072	가리비	856	2,019.9	-	-	-	-	-	-	855.9	2,019.9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1,207	3,171.8	261	277.0	2	8.9	-	-	1,209.0	3,180.7	261	277.0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693	2,980.4	-	-	0	0.0	-	-	692.5	2,980.4	-	-
03081	해삼	66	365.4	-	-	0	0.0	-	-	66.0	365.4	-	-
03082	성게	627	2,615.0	-	-	-	-	-	-	626.5	2,615.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8.19. 검색)